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제1812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8월 4일 (음력 7월 4일) 월요일

"다리 밑이 최고야" 휴일인 3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이자 시민들은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다. 이날 오후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임곡교 아래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피서 절정 '특수'는 옛말

〈特需〉

고물가 여파 대부분 텐트·음식 준비

'짠돌이 피서' 대세에 상인들 '울상'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올 여름 휴가 풍속도를 바꾸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알뜰피서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수욕장 등 휴가지 인근 상가와 민박집은 예년과 같은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텐트 숙박 등 '알뜰 피서' 늘어= 전남지역 대표적 휴가지인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지난 6월 2일 개장한 이후 3일 현재까지 76만여명이 다녀갔다. 2006년 89만3천명이었던 피서객이 지난해에 완도~신지간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94만8천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0만여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서객은 늘었지만 휴가지 풍속도는 확연히 다르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올해 140여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했으나 완전 매진됐다. 또 직접 텐트를 가져오는 피서객들도 늘면서 하루 1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야영장도 만원이다.

올해 오토 캠핑장을 개장한 해남 송지면 송호해수욕장의 경우도 가족단위 텐트족이 늘면서 캠핑장 자리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고, 백사장 주변이 온통 텐트촌으로 변했다. 텐트족들은 식사·간식 등을 모두 텐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피서객들로 북적거렸던 지리산 화엄사 계곡은 올해 피서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화엄사측에서 대인 3천원, 청소년 1천600원의 사찰 관람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피서객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계곡을 찾았는데 왜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며 매표소가 없는 계곡을 찾아 이동했다.

◇인근 상가 '우울', 할인점 '활짝' =피서객 대부분은 고기나 음료·과일·술 등을 대형할인 마트에서 미리 구입해오기 때문에 피서지 상가의 매출은 크게 줄었다. 더욱이 일부 피서객들은 당일 또는 1박 정도로 휴가 일정을 줄이는 추세여서 민박집도 예년과 같은 특수는 보지 못하고 있다.

홍선애(여·30·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수영복이나 피서용품은 인터넷에서, 음식과 음료 등은 할인점에서 구입해 가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돈을 쓰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명사십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백영팔(63)씨는 "당일치기나 1박2일 일정의 피서객들이 크게 늘었고,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20~30% 줄었다"며 "피서객들이 도통 지갑을 열려고 하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반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10분 거리인 할인매장에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피서객들이 예년에는 다소 비싸더라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물품을 구입했지만 최근에는 승용차를 이용해 할인매장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완도군 신지면 N마트 관계자는 "생수나 고기, 야채 등 지난해에 비해서 15~20% 정도 수입이 늘었다"며 "주머니 사정이 좋지않은 피서객들이 좀 더 저렴한 곳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강필상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용봉2 Humansia 5년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 2008년 8월 4일~6일
공급규모 총 263호 81㎡형 68호, 112㎡형 195호
견본주택 7월 15일 개관(사업지구내)
임대문의 견본주택 ☎361-6801 도시재생사업팀 ☎380-0668
사랑이 반갑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국비 120억원 편성 'F1 탄력'

정부 지원 가시화 … 국회도 지원법 조기 제정 움직임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F1(포뮬러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해 정부가 지원예산을 편성·심의하고, 국회에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하 F1지원법)' 조기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0억원을 편성·심의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F1 경주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해놓고 있어, F1대회와 관련된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F1지원법과 관련,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법안내용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1지원법 제정은 여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F1 대회 지원을 위해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F1 대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터스포츠 R&D(연구·개발)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식경제부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F1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개최권료와 SOC 시설비로 1천200억 원의 국비지원이 예상된다"며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北 "금강산서 남측 인원 추방"

정부 "납득할 수 없어 … 유감"

정부는 3일 발표된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담화와 관련, "북한이 지난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남북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례로 봐서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로서는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며 "북한은 관광객들이 개성지역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신변안전이 최우선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대변인 담화 직후 남북출입사무소, 고성 출장소, 현대아산 관계자 등에 대해 관련 상황 통보하고 평양 등 방문하는 분들에게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 인민군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특별담화를 통해 "우리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인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강산 지구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강산 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금강산에 체류중인 남측 인원은 금강산 관광사업 관리를 위한 현대아산 관계자 47명, 골프장 관련 사업자 및 협력업체 직원 150명, 금강산 면회소 관련 사업자 16명, 온정각 식당 운영자 등 기타 사업자 49명 등 262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암대학 창학 55년 역사의 자랑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첫 여성 주한 미대사 스티븐스 8월말 부임

한미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여성 주한 미대사가 탄생했다.

〈관련기사 5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캐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 주한미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만간 스티븐스를 주한미대사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븐스는 빠르면 8월말이나 9월중 한국에 공식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양창수 서울대 교수 대법관에 임명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56·연수원6기)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관련기사 3면〉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물론 제주 출신이 제청된 것 또한 사상 처음이다.

양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연합뉴스

JR 조이 여행사
일본 - 큐슈 북부
439,000
559,000
489,000
599,000~
239,000
목포 / 일어도 바지락 체험 (남일관광)
성인: W29,500
아동: W26,500
▶일본 배낭 여행 상담 가능
중국 - 무안출발
▶홍콩/마카오/심천 4일 829,000
▶상해/항주/소주 4일 519,000
▶상해/무석/소주/시장 4일 649,000
▶상해/황산(산림숙박)/항주 4일 719,000
▶상해/황산(단일숙박)/항주 5일 739,000
▶상해/황산(선유숙박)/항주 5일 769,000
▶제주도 절기투어 패키지 3일 289,000